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음 6월 18일) 제20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어린이집 차량 아이들 방치 막아야

관리소홀 인한 사망 잇따라  
전주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안전·아동학대예방 교육

전주시가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된 아들이 사망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전주시 어린이집 원장 6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동관리 소홀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의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 예방관련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도입을 청원하는 글이 많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란 통학버스에 잠들어 있는 아이가 없는지 반드시 운전자가 체크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운행일지를 적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런 형식적 제도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런 강제 규정을 만든 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성료

제8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28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 김영재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소경희 사)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 등 내빈과 경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보 16면>

### 통학버스에 잠든 아이 없는지 운전자 체크토록 법률로 강제 靑 국민청원 게시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제화 목소리 슬리핑 차일드 관련법안, 국회서 상임위 통과 못한 채 계류중

않으면 사고발생 유무를 떠나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법제화의 목소리가 크지만 관련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채 통학차량 방치된 아이처럼 잠들어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날 안전교육에 전수연 도로교통공단 강사와 김완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강사로 초청, 폭염대비 차량안전관리 요령,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사례 등의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내리면 인솔교사가 하차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 뛰는 경우가 많다"며, "통학버스 운전자도 아이들이 내리면 차 안에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도민들과 피서객들도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삼가, 위험구역에 출입하지 않기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매일 INDEX

- 2면 - 남북 정상급 회담 31일 개최
- 16면 -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화보

## 한여름 음악축제 전주를 시원하게

2018 전주얼티밋 뮤직페스티벌

국카스텐 등 뮤지션들 대거 출연

내달 3~5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오는 8월 3일, 4일 5일 3일간 2018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2018)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그리고 화려한 라인업으로 다시 찾은 JUMF2018!' 라는 주제로 전주에서 열린다. JUMF는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다.

JUMF는 인디, 오버, 록에서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다양성을 갖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도 이승환,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아이쿵, 이수, 린, 10cm, 멜로망스, 데이브레이크, 로꼬, 헤이즈, 잔나비 등 K-POP 아이돌부터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또한, 기타리스트 빅토르 스톨스키가 이끄는 독일의 심포니 메탈밴드 ALMANAC, 그리스 전통악기 부주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코어록 밴드를 자랑하는 Tri-state-cornet, 일본 모던록의 라이징스타 Merrai Siren, The winking owl 그리고 2010년 EMERGENZA 페스티벌 월드챔피언에 오른 일본의 Harato chiruran 등 해외의 아티스트들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다.

2018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2018)관계자는 "올해도 수

도권의 어느 뮤직 페스티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트렌디한 뮤지션들을 요일별로 장르를 다양하게 배치해 마니아층과 일반 관객을 모두 만족시키겠다"고 말했다.

티켓에매는 인터파크 또는 yes24티켓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고, 티켓가격은 1일권 5만원, 2일권 7만원, 3일권 9만원이며 JB카드, KI카드 또는 E카드 결제 시 2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장티켓은 팔찌형태로 제공된다.

공연시간은 첫째날인 8월 3일 금요일에는 1시 55분에 시작, 둘째날 4일(토)은 12시 20분에 시작, 마지막 날인 5일(일)은 12시 40분에 각각 시작하며 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미희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홍보팀장은 "경쟁에 지쳤던 청년들에게 잠시 휴식을 갖고 마음껏 뮤직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이 공연을 준비했다"며, "문화행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주지역에 외부 관객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콘텐츠로써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즐거운 물놀이도 안전이 우선... 전북도, 현장 합동점검

전북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하천, 계곡, 강 내수면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이 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군 물놀이 주요 현장에 대해 안전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

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108개소, 위험구역 3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지역에는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등 4,558점을 설치하고 위험구역에는 위험표지판,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시설 정비에 나섰다.

또한,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 사전교육을 마친 총30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8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

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주중 및 주말에도 안전관리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119종합상황실,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보고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우리 도 내에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계곡과 하천이 많아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구명장비 설치 확대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물놀이

# “남원시의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명소 빛나는 남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한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